

## 山茱萸의 氣味論적 해석과 내외부형태연구

최문일<sup>#</sup> · 이화정 · 윤주봉 · 김자영 · 강경식 · 신철균 · 주영승\*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 The Approach of Properties-Flavours Theory and the Study of Morphological Standard in CORNI FRUCTUS

Mun-Il Choi<sup>#</sup>, Hwa-Jung Lee, Ju-Bong Yun, Ja-Young Kim,  
Kyoung-Sik Kang, Chol-Gyun Shin and Young-Sung Ju\*

Dept. of Herb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pproach of properties-flavours theory and the study of morphological standard in CORNI FRUCTUS.

**Methods** : The properties-flavours theory were attempted with bibliographic method and various climate-information. The external-internal morphological standards were determined by using stereoscope and butanol series.

**Results and conclusion** : 1. The significant analysis for the corni fructus as the properties-flavours theory, is a follow-up survey of the effect written in the official oriental medicine book.

2. The other analytic methods according to the gathering time, processing or storing system or especially nature or growth environment (altitude, temperature, the mean moisture, and the agronomical survey) by way of the explanation of properties-flavours theory appears so many insufficiency at the many cases.

3. The external and intern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hape of original plant or herbal states, entirely correspond to all the literature on this subject.

4. According to the place of production, there are some different points.

(1) In the external shapes, it is reasonable that if we make the basic standard of classification by the sharpness of color, the existence of gloss and the size of products.

In the case of the Korean products, it shows bright and glossy color totally, but in the case of North Korea products, it shows black and lackluster. And in the case of the foreign products, it has softer body than Korea one and shows white color on the surface.

(2) In the internal shapes,

the Korea products has a thicker cuticle layer than the foreign one, and has fewer ca-oxalate in the parenchyma cell.

**Key words** : CORNI FRUCTUS, properties-flavours theory, morphological stan

## 서론

전래로 내려오고 있는 한약재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정하는 표준한약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질병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수요증대와 천연품으로의 회귀욕구의 증대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는데 연유한다. 즉 정확한 한약재 설정의 부실함은 연구 및 임상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한약재의 혼란에 직결되는 것이며 효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약재의 표준품 정립을 위한 접근 방식은 크게 한의학적 이론을 활용한 방식<sup>1,2)</sup>과 근대이후에 도입된 자연과학적 방식<sup>3,4)</sup>을 활용하는 2가지로 압축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한의학적 이론을 활용한 방식의 중심축에 氣味論이 있으며, 자연과학적 방식은 형태와 이화학패턴 및 유전자감식 등의 방법<sup>4)</sup>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한의계의 입장으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氣味論에 입각한 설명이 이상적이겠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접근방법은 모색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실제적으로 공정서등에서 많은 부분이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sup>5,6)</sup>,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한의계의 입장에서는 관망의 상태에 있다. 즉 자연과학적 방식은 한의계의 입장에서 이론상의 차이점을 나타내어 한약재의 설명을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연구 및 적용의 현장에서는 한의학적인 접근과 자연과학적 접근이 동시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이에 대한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7,8)</sup>.

한의학적 이론을 활용하는 방식인 氣味論적인 접근은 오랫동안 한의계의 집중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된 바가 없이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한약재라도 산지 혹은 조제법에 따라서 약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기원식물이 다양하면 동일명의 한약재라도 氣味가 달라질 수 있어 약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한의학적 사고인 것이다. 즉 문헌 및 시대 혹은 산지의 형질의 차이에 따라 약효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가변성과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 氣味論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이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시도가 유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필요성만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타깝지만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 시도의 결과에 따라 한의학의 고유한 이론인 氣味論은 새로운 면에서 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한약재의 내용을 정하는데 객관성을 가지고 적절히 이용되어지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내외부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sup>9-12)</sup>. 내외부형태는 한약재의 정확한 기원을 밝히고 동일한 조건에서 형태학적 판단을 함으로써, 기타의 객관적인 검사기준 등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한약재는 한 식물 혹은 동물에서도 약용부위가 한정적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한약재의 대부분이 건조된 상태에서 유통되어지고 있음을 볼 때, 특정약용부위의 건조상태에서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기원한약재의 약물상태에서의 외부형태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건조된 상태에서 특정부위만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한약재는 외부형태만으로는 정확한 기원의 약재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실제로 육안에 의한 외부형태도 필요에 따라 확대경이나 stereoscope 등이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형태는 이보다 더 세밀한 부분의 감별에 보다 나은 자료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현미경에 의한 내부감별은 외부형태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기원한약재의 약물상태에서의 내부형태가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 점차 방법에 대한 구체성의 제안<sup>13)</sup>과 실시<sup>4,7,9-12)</sup>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酸澁微溫 하며 肝腎經에 歸經하고 補益肝腎 滋精固脫의 효능으로 眩暈耳鳴, 腰膝酸痛, 陽痿遺精, 遺尿, 尿意頻數, 崩漏帶下, 大汗虛脫, 內熱消渴등에 사용되는 收澀藥인 山茱萸에 대하여<sup>14-18)</sup>, 한의학의 氣味論적 입장에서 추론하여 보고, 자연과학적 방법 중 한의학적 사고와 현재까지는 가장 근접한 분야인 내외부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재료 및 방법

### 1. 材料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 및 한약재는 氣味論적 연구와 외내부형태용 연구 등 2부류로 나누어 채집되었다. 氣味論적 연구에서는 특성상 자연조건 등의 설정이 절대적인 점에 비추어 상대조건 설정이 객관적인 국내의 집중 재배단지 및 자생지를 중심으로 하였

고, 외내부형태를 위해서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자 연상태의 채취와 약재상태의 구입을 2003년 1월 ~ 2004년 2월까지 국내와 중국에서의 현지채취 및 건조 한약재의 구입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 시료의 수집

氣味論적 연구를 위한 시료의 수집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지 방문후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재배 및 자생되었던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료를 수집하였다.

내외부형태용의 경우 국내 자생종에 대하여는 기 원확인 후 비교동정을 위한 자료로서 현지 채집을 하 였고, 국내 재배종의 경우에도 기원을 확인 후 현지 채집하였다. 유통품에 대한 채취는 국내외의 한약재 시장(서울, 대구, 광주, 중국현지시장)의 한약재를 채 취하되, 국산과 수입산으로 나누었고 가능한 이를 상 중하품으로 다시 나누어 수집하였다. 외국산 한약재 에 대하여는 현지채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 현지 채집인과 연계하여 산지별·시기별로 채집 및 수집하였다.

일단 수집된 식물에 대하여는 실험실 조건에서 기 원을 확인하였고, 자연상태 및 약재상태에서의 국 내·국외품에 대하여는 채취 및 건조과정을 통한 한 약재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表 1. 採集 (氣味論용)

고유번호	산지
표준-스-1-1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월계리 해발 355m
표준-스-1-2	경북 김천시 지례면 여배2리 해발 220m
표준-스-1-3	전북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163번지 해발 490m
표준-스-1-4	전북 진안군 진안읍근약초시험장
표준-스-1-5	전북 금구면 용봉리 48번지

(외내부형태용)

고유번호	채취·수집지	채집원
표준-스-2-1	1)국산재배	(주)한약사랑
표준-스-2-2	2)북한산	(주)한약사랑
표준-스-2-3	결강성(03/10)	윤니허브
표준-스-2-4	1)상품-구례	한국생약협회
표준-스-2-5	2)중품-수입산	한국생약협회
표준-스-2-6	국산	대구약령시
표준-스-2-7	국산	영암생약(전남)
표준-스-2-8	1)상품-국산	농림생약(서울)
표준-스-2-9	2)중품-국산	농림생약(서울)
표준-스-2-10	국산	동강무역(전북)
표준-스-2-11	1)국산A	남영제약(무주)
표준-스-2-12	2)국산B	남영제약(무주)

2. 方法

1) 氣味論적 연구<sup>14-18)</sup>

研究 方法으로 氣味論적인 입장에서 한약재를 살 펴보는 시도로서 국내에 다양하게 분포하여 관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한약재 중 果實類 약재인 山茱萸 를 선택하여, ① 공정한방의서에 나타난 해당한약재 의 효능을 중심으로 역추적하는 氣味論적 해석과 ② 실제 현지채취시 해당지역의 고도와 온도, 평균 습도 등을 근거로 한 氣味論적 해석과 ③ 산출지역의 토양 분석을 근거로 한 氣味論적 해석과 ④ 채취시기, 가 공방법, 보관방법에 따른 氣味論적 해석을 시도하였 다. 氣味論적 해석은, 우선적으로 주산지를 선택하였 으며 아울러 객관적인 재배조건을 갖춘 장소(예 : 입 업시험장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토양분석의 경 우 5장소에서 採土하였으며, 이 역시 해당지역의 관 련기관(예 : 농업기술센터, 군청-특용작물계 등)의 추 천과 지역주민의 입증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하였다. 採土된 토양은 농업기술원의 분석을 거쳐 전북대농과 대학의 객관적인 판독을 받았다.

2) 자연과학적 연구<sup>4,7,9-12)</sup>

(1) 外部形態觀察

起源植物의 형태는 현지에서 기존의 검색기준에 따라 확인하여 보완하였으며, 채취 후 본 실험실에서 陰乾하면서 건조과정을 관찰하였고, 완전 건조 후에는 유통되고 있는 山茱萸와의 비교관찰을 위해 육안 과 확대경·stereoscope를 사용하였다.

(2) 內部形態觀察 : Butanol series를 이용한 橫切面 관찰

① Killing and Fixation : 組織을 5mm × 5mm크기로 부위별로 절단하고 가능한 구조를 生體와 같은 상태 로 고정하기 위해 FAA용액 (formalin 5cc, glyacial acetic acid 5cc, 50% ethyl alcohol 90cc)으로 24시간 이상 고정시켰다.

② Aspiration stage : 진공상태에서 조직내부의 기 포가 조직액 상면에 나타날 때까지 조직의 기포를 제거하였다.

③ Dehydration series : Butanol series를 이용하여 8단계로 진행시켰으며 조직의 특성상 각 단계를 4 시간으로 하였다.

表 2. Dehydration series (unit : ml)

NO	1	2	3	4	5	6	7	8
n-Butanol	10	15	25	40	55	70	85	100
Ethyl alcohol	20	25	30	30	25	20	15	0
Water	70	60	45	30	20	10	0	0

④ Infiltration : Butanol과 soft paraffin을 1 : 1로 하여 재료가 담겨있는 jar에 넣고 incubator에서 58~60℃를 유지하면서 butanol을 5일 동안 완전히 기화시켰다. 여기에 同량의 hard paraffin을 넣어 incubator에서 60~70℃로 1~3일동안 유지시켰다.

⑤ Bloking in the cake case (Embedding) : 규정의 cake case에 넣어 bloking시킨 다음 1~2일 실온에 방치하였다.

⑥ Section : 칼날각도를 5도로 하고 두께를 5~10 μm로 하여 절단한 후 albumin을 도포한 slide glass에 검체를 올려놓았다.

⑦ Slide warmer에서 1~2일 동안 overnight시켰다.

⑧ Staining series : 염색액을 충분히 切片내에 침투시키기 위한 Dewaxing과정, 다단계의 alcohol을 통한 含水 및 脫水과정과 염색체의 염색을 위한 Iron alum · 세포막핵의 염색을 위한 Hematoxylin · 木化膜의 염색을 위한 Safranin과 Light green등의 과정을 거쳐 봉입하여 관찰하였다.

表 3. Staining series

NO	REAGENT	TIME	NO	REAGENT	TIME
1	xylene (dewaxing)	10 min	12	D.W washing	3 min
2	xylene (dewaxing)	10 min	13	30% alcohol	2 min
3	absolute alcohol	5 min	14	50% alcohol	2 min
4	95% alcohol	5 min	15	70% alcohol	2 min
5	70% alcohol	5 min	16	90% alcohol	2 min
6	50% alcohol	5 min	17	1% light green	30 sec
7	30% alcohol	5 min	18	95% alcohol	5 min
8	4% Iron alum	1 hr	19	95% alcohol	5 min
9	1% Hematoxylin	1 min	20	absolute alcohol	5 min
10	2% Iron alum	1 min	21	xylene	5 min
11	1% Safranin	24 hr	22	xylene	5 min

⑨ Mounting : 퇴색과 부패 등으로 인한 조직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canada balsam으로 봉입하였다.

⑩ Observation :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으며 photoscope으로 촬영하였다.

## 결 과

山茱萸에 대하여 氣味論적 연구와 내외부형태를 통한 기원품 확립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氣味論적 연구

1) 공정한방의서에 나타난 해당한약재의 효능을 중심으로 역추적하는 氣味論적 해석

이 藥은 한방 임상에서 補益肝腎, 澀精固脫하는 效能이 있으며, 肝腎虧損, 眩暈耳鳴, 腰酸膝痛, 陽痿遺精, 遺尿, 尿意頻數, 崩漏帶下, 大汗虛脫, 內熱消渴 등의 症狀을 主治하는 藥으로 응용되고 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① 利尿작용과 血壓降下를 나타낸다. 이중 利尿작용은 山茱萸의 固澀小便작용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실험과 임상적 관찰의 양면에서 비교가 요구된다. ② 痢疾杆菌과 葡萄狀球菌 皮膚眞菌 등에 억제작용을 나타낸다. ③ 항히스타민 작용을 나타낸다. ④ 복수암 등에 抗瘤작용을 나타낸다.”라고 藥理 作用이 밝혀져 있다.

여러 한의학 문헌을 통해 山茱萸의 效能과 主治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神農本草經	主心下邪氣 寒熱 溫中 逐寒濕痺 祛三蟲 久服輕身
雷公炮炙論	壯元氣 秘精
名醫別錄	主腸胃風邪 寒熱 疝瘕 頭風 風氣去來 鼻塞 目黃 耳聾 面瘡 溫中下氣 出汗 強陰益精 安五臟 通九竅 止小便 明目 強力長年
藥性論	治腦骨痛 止月水不定 補腎氣 興陽道 添精髓 療耳鳴 除面上瘡 主能發汗 止老人尿不節
日華子本草	暖腰膝 助水臟 除一切風 逐一切氣 破癥結 治酒瘡
珍珠囊	溫肝
本草正	固陰補精 調經收血
得宜本草	功專助陽固陰
本草再新	益氣養陰 補腎平肝 溫中發汗 利小便 除寒氣
本草求原	止久瀉 心虛發熱汗出
中華本草	補益肝腎 收斂固脫 主治 頭暈目眩 耳聾 耳鳴 腰膝酸軟 遺精滑精 小便頻數 虛汗不止 婦女崩漏
中華藥海	1. 補益肝腎 : 腰酸 眩暈 耳鳴 驚悸 陽痿 五更泄 2. 收斂固虛 : 肝虛自汗 遺精滑泄

(1) 山茱萸의 氣

이중 山茱萸의 성질이 따뜻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관련된 效能과 主治는 “溫中 逐寒濕痺 溫中下氣 暖腰膝 溫肝 溫中發汗 除寒氣”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效能과 主治는 山茱萸가 寒證을 치유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溫性の 약물은 봄기운에 적응되어 萬物이 蘇生하는 기운을 받아 發育을 위주로 하며 緩和, 強壯, 升提, 補陽, 開胃, 通經絡, 止瀉, 散寒, 體溫上升, 煖丹田, 祛痰, 安神, 理氣益氣, 行血止汗 작용을 나타낸다. 그 예로 人蔘은 溫性으로 大補元氣하며 安精神 開心益智 自汗 安魂魄 生津에 유효하고, 黃芪는 補中益元氣 止汗 脾胃하며, 當歸는 和血 潤腸 通經 調經하고, 砂仁은 和胃 調中 胎氣不安에 유효하며, 木香은 開鬱 安胎 健胃 作用이 있고, 熟地黃은 補血 滋腎水利血脈 乾咳 痰嗽를 치료한다. 또 川芎은 調經 止痛 行血시켜 모든 血症에 유효하다. 이러한 溫性 藥材들의 임상응용과 山茱萸의 응용은 유사점이 많다. 다만, 寒熱의 부조화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寒熱을 다스린다”라고 한 부분이나 “虛汗不止, 肝虛自汗” 등도 主治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매우 熱한 약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山茱萸는 甘寒滋潤한 약물과 배합되어 陰血을 補하고, 甘溫辛熱한 약물과 배합되어 陽氣를 補益한다. 이의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補益肝腎 澁精固脫하는 六味地黃丸 左歸飲(補腎陰)과 八味地黃丸 右歸飲(補腎陽)이 있다(腎陰虛六味. 腎陽虛八味). 이에 따라 山茱萸를 平補陰陽之劑로 치칭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命門火熾로 陽強不痿하거나, 안에 濕熱이 있어서 발생하는 小便不利의 경우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山茱萸의 금기증도 山茱萸의 微溫한 氣를 反證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山茱萸의 氣는 微溫하다고 할 수 있다.

(2) 山茱萸의 味

山茱萸는 주로 臨床에서 補益肝腎 澁精固脫을 위해 應用한다.

그 예로 肝腎不足으로 인한 眩暈耳鳴 腰膝酸軟 遺精滑泄과 小便頻數을 치료하는 六味地黃丸, 左歸飲(熟地黃 山藥 山茱萸 杜仲 枸杞子 甘草 白茯苓) 혹은 八味地黃丸이나 右歸飲(熟地黃 山藥 山茱萸 杜仲 枸杞子 炙甘草 附子 肉桂) 등은 山茱萸가 배합되어 있다. 또한 山茱萸는 腎虛腰痛과 小便頻數을 치료하는 경우(山茱萸丸-山茱萸 覆盆子 菟絲子 巴戟天 人蔘 楮實子 五味子 葶藶 牛膝 桂 天雄 熟地黃)나 人蔘 白芍藥 龍

骨 牡蠣 등을 같이 사용하여 大汗出로 亡陽欲脫의 證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응용이 되었다.

더 나아가 氣血兩虛로 인한 婦女의 月經過多 漏下不止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固冲湯(白朮 黃芪 山茱萸 熟地黃 白芍藥 龍骨 牡蠣 阿膠 茜根炭 陳棕炭 등)에도 응용되었다.

五味중 酸味는 能收 能澁한다고 하였다. 能收란 수렴의 의미가 있다. 즉 耗散된 正氣, 津液을 수렴하는 것이다. 成無己는 《注解傷寒論》에서 小建中湯, 芍藥甘草湯, 黃連阿膠湯 중의 芍藥에 대해 分別하여 注解하길 “芍藥之酸, 以收正氣”, “芍藥之酸, 收斂津液而益榮”, “芍藥之酸, 收陰氣而泄邪熱”이라 했다. 李東垣은 《內外傷辨惑論》에서 參朮調中湯에 대해 注하길 “五味子之酸, 收耗散之氣, 止咳嗽.”라고 하였다. 久咳로 肺氣가 耗散되었거나 多汗不止 등 證에 五味子, 訶子, 烏梅, 白芍藥 등의 收斂藥을 쓸 수 있다.

또한 能澁이란 止澁의 의미가 있다. 즉 澁精, 澁腸의 작용이다. 《湯液本草》에 “山茱萸止澁以收其滑”이라 하였으며, 《本草綱目》에 “赤石脂, 其性澁, 澁而重, 故能收濕, 止血而固下, 下者, 腸澀泄痢, 崩帶失精是也” 그러므로 滑精, 遺尿, 久瀉, 久痢. 崩漏, 帶下, 脫肛, 子宮下垂 등의 증상에 芡實, 金櫻子, 禹餘糧, 赤石脂 등의 止澁의 약물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酸味の 能收 能澁하는 효능은 山茱萸의 效能, 主治, 臨床例와 일치한다.

특히 “出汗, 心虛發熱汗出, 肝虛自汗” 등에 응용되는 것은 能收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止月水不定 婦女崩漏”의 效能 主治는 能收의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秘精, 強陰益精, 添精髓, 助水臟, 固陰補精, 調經收血, 遺精滑精, 收斂固脫”의 效能 主治는 澁精, “止久瀉, 五更泄”의 效能 主治는 澁腸으로 볼 수 있겠다.

十劑란 藥物을 그 작용에 따라 10種으로 나눈 것인데 [證類本草序例]에는 “澁은 脫을 去하는 것으로 龍骨 牡蠣 등이 이에 속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徐大椿은 《神農本草經百種錄》 礬石條에 注하길, “礬石味澁而云酸者, 蓋五味中無澁, 澁則酸之變味, 澁味收斂, 亦與酸同.”이라 하여 淡味와 澁味를 五味에 배속하지 않았다. 清代 汪昂은 《本草備要》에서 “凡藥酸者能澁 能收; 苦者能瀉 能燥 能堅; 甘者能補 能和 能緩; 辛者能散 能潤 能橫行; 鹹者能下 能軟堅; 淡者能利竅 能滲泄. 此五味之用也”라 하였다. 하지만 湯液本草에서는 “滑則氣脫 澁劑所以收之 山茱萸止小便利 秘精氣 取其味酸澁以收滑也”라고 하여 澁을 味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山茱萸의 味는 酸澁하다고 하여

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본다.

또한 실제로 山茱萸를 섭취했을 때 맛은 신 맛이 있으며 약간 달다. 따라서 山茱萸의 味는 酸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山茱萸의 性味는 “微溫 酸澁 無毒”하다 할 수 있다.

2) 실제 현지채취시에 해당지역의 고도와 온도, 평균습도 등을 근거로 하는 氣味論적 해석

(1)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월계리 해발 355m [구례군 기상개황]

연월일	기온(℃)					강수량(mm)	상대습도(%)	평균해면기압(hPa)	이슬점온도(℃)	평균운량(10%)	일조시간	최심적설량(cm)	바람(m/s)		
	평균	평균최고	극점최고	평균최저	극점최저								평균	최소	평균풍속
2002	12.5	18.2	34.3	7.5	-10.1	1,641.2	70				1,946.6	8.2			
2003	12.3	17.1	33.0	7.1	-13.8	1,736.0	72				1,802.5	19.0			

(2) 경북 김천시 지례면 여배2리 해발 220m [김천시 기상개황]

연월일	기온(℃)					강수량(mm)	상대습도(%)	평균해면기압(hPa)	이슬점온도(℃)	평균운량(10%)	일조시간	최심적설량(cm)	바람(m/s)		
	평균	평균최고	극점최고	평균최저	극점최저								평균	최소	평균풍속
2003	12.8	18.5	34.5	7.9	-11.8	1,749.8	66	14	10.72	6.2	1,904	8.8	1.3	10.7	19.8

(3) 전북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163번지 해발 490m  
(4) 전북 진안군 진안읍근약초시협장 [진안군 기상개황]

연월일	기온(℃)					강수량(mm)	상대습도(%)	평균해면기압(hPa)	이슬점온도(℃)	평균운량(10%)	일조시간	최심적설량(cm)	바람(m/s)			
	평균	평균최고	극점최고	평균최저	극점최저								평균	최소	평균풍속	최대풍속
2002	11.5	32.7		-14.3		1,685	66	13	1,016.6	4.0	-	2,082.0	13	1.6	10.8	NW
2003	10.5	26.7		-10.7		2,208.1	73.8	46.0	1,016.6	5.5	-	1,904.1	21.3	1.6	4.7	NW

(5) 전북 김제시 금구면 용봉리 48번지 [김제시 기상개황]

연월일	기온(℃)					강수량(mm)	상대습도(%)	평균해면기압(hPa)	이슬점온도(℃)	평균운량(10%)	일조시간	최심적설량(cm)	바람(m/s)		
	평균	평균최고	극점최고	평균최저	극점최저								평균	최소	평균풍속
2002	13.6	19.2	33.9	8.9	-9.7	1,000.9	66	7	1,016.6	4.0	54	1,883.3	13	2	13.6
2003	13.4	18.5	33.7	9	-15.1	1,860.3	69	11	1,016.8	7.3	5.6	1,731.3	20.7	1.8	7

이와 함께 지역적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 구례군은 산지가 전체면적의 77.4%를 차지한다. 험준한 산악지대를 끼고 있는 산간 내륙지방이므로 기온차가 심하고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며, 섬진강 유역에 위치하여 지형성 강우가 많은 편이다.

김천시는 소백산맥의 영향으로 내륙분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교차가 크다. 소백산맥이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막아 겨울에는 비교적 온난하나 여름에는 매우 덥다.

진안군은 전라북도의 동부산악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령산맥이 남쪽으로 뻗어 있어 임야가 79.9%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고산지대에 자리잡고 있어서 기온의 평균최저치가 -10.7℃를 보였으며 대체로 날씨는 타지역에 비해 기온이 많이 낮았다.

김제시는 남부 서안형 기후로 연중 맑은 날씨가 많고 대체로 온난하다.

山茱萸는 우리나라 中部이남에서 재배한다. 특히 全南의 求禮, 慶北의 奉化, 京畿의 利川, 驪州, 楊平 등이 有名하다. 중국에서는 浙江 安徽 陝西 河南 등지에서 산출된다.

《中華本草》에서는 山茱萸에 대하여 “溫暖하고 濕潤한 氣候를 좋아한다. 日光을 좋아한다. 土質이 肥沃하고 土層이 深厚하며, 排水가 양호한 砂質壤土나 壤土에서 재배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山茱萸는 대체로 온화한 기후와 내륙성 지대의 기후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을 받아들여 微溫한 性품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微溫 酸澁 無毒한 山茱萸의 氣味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연생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채취시기 · 가공방법 · 보관방법에 따른 氣味論적 해석

(1) 채취시기

振谷本草	늦은 가을과 초겨울에 果皮가 紅色으로 변한 것을 채취
韓藥 炮製와 臨床應用	10~11월경에 성숙하였을 때 따다

果實과 種子는 식물체에 따라서 종류와 성숙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다. 보통 성장을 완료했거나 성숙에 가까워졌을 때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益母草 杏仁 등이 있다.

그런데, 靑皮 烏梅 枳實 등 果實類 藥物은 未成熟

할 때에 채취하며, 枸杞子 같이汁이 많은漿果는 쉽게 썩거나 상하기 쉬우므로 여름에서 가을사이에서 성숙한 것을 채취해야 한다. 그 외에 小茴香 肉豆蔻 등은 성숙한 후에 흩어져 탈락하거나 찢어지므로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 즉 성숙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채집한다. 牽牛子 白芥子 같은 種子類의 약물은 완전히 성숙하여 未開裂時에 채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赤小豆 綠豆 같은 莢果의 채취시기는 果角이 과열하여 종자가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채집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말려진 약재에서 검은색을 띠는 것은 未熟한 果實을 채취한 것이고, 빨간 색을 띠는 것은 完熟한 것으로서 단 맛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육질이 肥厚하고 자홍색이며 油潤하고 유연하면서 果核이 없는 것을 良品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山茱萸의 채취시기는 山茱萸의 微溫하며 酸澁한 氣味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인 완숙된 果實을 채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가공방법

① 洗淨과 雜質除去 및 非藥用部位의 분리와 제거

山茱萸는 洗漂法이 기본이다. 洗나 漂는 약물을 水洗하거나 빨아서 雜質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山茱萸와 마찬가지로 洗漂法을 사용하는 藥物은 烏梅, 大棗, 川貝母, 海藻, 昆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山茱萸는 끓는 물에 약간 삶아 核仁을 제거하고 晒乾한다고 하였거나, 果柄을 제거하고 약한 불로 그을려 냉각시킨 후 種子를 발라내고 果肉을 햇볕이나 불에 말린다. 果實類의 약물 중에는 果肉을 사용하고 核(種子)은 사용하지 않는 약물이 있다. 그 중 核(種子)은 비약용 부분에 속한다. 이러한 약들은 核과 果肉의 작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거하거나 구별하여 調劑하여야 한다. 《雷公炮炙論》 중에는 “山茱萸는 內核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데, 內核은 滑精하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童女들에게 齒牙를 사용하여 核을 제거하는 것이 補腎力이 좋다고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다분히 추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이때에 童女들의 齒牙가 부식되었는데 이는 沒食子酸, 사과酸, 酒石酸 등의 성분에 의존함을 추측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去核하지 않으면 山茱萸의 주된 작용인 澀精효능이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滑精작용을 나타낸다고 하여 경계한 내용에 대하여, 근래에 와서 果肉과 果核의 연구결과를 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도 임상결과에

서는 일치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즉, 어떤 경우에는 遺精 환자가 核을 같이 복용한 경우 病情이 가중되었고, 去核한 후 肉만을 사용하였더니 효과가 뚜렷하게 호전되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核을 같이 사용해도 효과가 같았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核을 같이 사용하였더니 果肉만을 單用한 경우보다 효과가 약간 약했으며, 또한 果核粉末을 건강인에게 복용하게 하였더니 불량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ursolic acid는 山茱萸의 주성분의 하나인데, 果核 중에는 果肉의 1/6이 함유되어 있으며, 果核이 차지하는 重量 자체가 매우 크므로 去核하지 않으면 한약재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래에 와서는 去核하고 있다.

결국 果核을 제거를 해왔던 것은 非藥用部位의 분리와 제거에 더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山茱萸의 微溫 酸澁 無毒한 氣味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修治

<p>辰谷本草</p>	<p>雜質과 核仁을 제거하고 斂除止汗의 목적으로 生用하거나, 補腎澀精의 목적으로 酒浸去核하여 果肉을 은물에 말리거나 酒蒸(山茱萸50kg당 黃酒 1kg)한다</p>
<p>韓藥 炮製와 臨床應用 中華本草</p>	<p>1) 山茱萸肉 : 果實을 깨끗이 씻어 果核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햇볕에 건조                  2) 酒山茱萸 : 깨끗한 山茱萸肉에 일정량의 黃酒를 고루 섞어 2~4시간 밀폐해 두었다가 술이 다 흡수되면, 그릇에 담아 밀봉하여 물 속에 넣고 武火로 12~24시간 燉(重湯)하여, 까맣게 윤이 나면 꺼내어 햇볕에 건조(山茱萸肉 100Kg 黃酒 20Kg)                  3) 蒸山茱萸肉 : 山茱萸肉을 취하여 접통에 넣고 먼저 武火로 물이 끓기를 기다린 다음 文火로 불을 낮추어 쪄는데, 外皮가 紫黑色이 되면 불을 끈 후에 덮어두고 하룻밤을 지낸 후에 꺼내어 건조</p>

酒山茱萸肉이나 蒸山茱萸肉은 모두 肝腎을 補하는 작용이 더욱 증강되어 滋補劑에 많이 활용되는데, 이 두 가지는 약효가 서로 같다. 眩暈耳鳴, 陽痿滑精, 尿頻, 遺尿, 月經過多 혹은 崩漏, 腰部痠痛, 脇肋疼痛, 目暗不明 등의 증상에 常用된다. 특히 腎水不足, 肝熱上升으로 인한 頭目眩暈, 耳鳴重聽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경우에 龜板 熟地黃 煅磁石 龍膽草 등을 배합하여 滋陰潛陽 清肝瀉熱하는데, 그 예가 耳鳴丸(北京市中藥成藥選方集)이며, 腎氣不足, 衝任不固로 인한 月經過多, 崩漏를 치료하는 경우에 白芍藥 烏賊骨 龍骨 棕櫚炭 茜草 등을 배합하여 固經하는데, 그 예가 清咳湯(傳青註女科)이다. 그리고 肝腎虧虛로 인한 腰部痠痛, 精神疲憊, 脚膝無力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경우에 鷄血藤 杜仲 續斷 熟地黃 등을 배합하여 補腎壯腰和血舒筋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山茱萸의 修治는 山茱萸의 微

溫 酸澁 無毒한 氣味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보관방법

耘谷本草	晒乾
藥業 炮製와 臨床應用	山菜莢는 끓는 물에 약간 삶아 核仁을 제거하고 晒乾한다고 하였거나, 果柄을 제거하고 약한 불로 그을려 냉각시킨 후 種子를 발라내고 果肉을 햇볕이나 불에 말린다
中華本草	건조한 容器內에 넣어, 酒山菜莢肉이나 蒸山菜莢肉은 밀폐하여 陰涼(그늘지고 서늘한 곳)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습기와 증발레가 생기지 않도록 힘쓴다.

果肉인 山菜莢의 氣味에 손상이 없도록 위와 같은 보관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채취시기, 가공방법, 보관방법을 통해 볼 때 山菜莢의 氣味는 微溫 酸澁 無毒한 내용의 유지 및 효율상승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산출지역의 토양분석을 근거로 하는 氣味論적 해석

시료 No	토지소재지	PH	OM (%)	유효인산 (ppm)	치환성양이온 (me/100g)			EC (ds/m)	석회, 규산 (kg/10a)	작목
					K	Ca	Mg			
1	전남 구례 산동면 월계리	5.8	66	447	1.4	9.0	2.4	0.7	65	
2	경북 김천 지례면 여배2리	7.2	38	449	0.9	13.0	1.8	0.3	0	
3	전북 진안 진안읍 오천리 163	6.6	37	36	1.0	4.7	1.2	0.2	0	
4	전북 진안 진안읍근약초시험장	6.7	13	281	1.1	2.7	1.7	0.2	0	
5	전북 완주 금구면 용봉리 48	6.5	24	343	1.5	9.8	2.3	0.2	0	산수유

참고 : 우리나라 농경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

구분	연 도	pH (1.5)	유기물 (g/kg)	유효인산 (mg/kg)	치환성 양이온(cmol <sup>+</sup> /kg)		
					K	Ca	Mg
논 토 양	'80	5.7	23	107	0.27	3.8	1.4
	'90	5.6	25	128	0.32	4.0	1.2
	적정범위	6.0~6.5	25~30	80~120	0.25~0.30	5.0~6.0	1.5~2.0
밭 토 양	'80	5.8	19	231	0.59	4.6	1.4
	'90	5.6	24	577	0.80	4.5	1.4
	적정범위	6.0~6.5	20~30	300~500	0.50~0.60	5.0~6.0	1.5~2.0
시설토 양	'80	5.8	26	945	1.01	6.4	2.3
	'90	6.0	39	1,435	1.11	6.4	2.3
	적정범위	6.0~6.5	20~30	350~500	0.70~0.80	5.0~6.0	1.5~2.0
과수토 양	'90	5.5	29	762	0.83	5.1	1.4
	적정범위	6.0~6.5	25~30	200~300	0.30~0.60	5.0~6.0	1.5~2.0

약초재배지의 경우 어떠한 항목에 기준을 두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약간 난해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발토양과 과수토양의 접점을 기준으로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 한약재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실험시행처 : 농업기술원, 판독 :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1) pH는 우리나라 토양특성에 기준할 경우 6.0~6.5 수준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료 No 2(경북 김천)의 경우만 7.2로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별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2) OM은 우리나라 토양특성에 기준할 경우 적정범위가 20~30g/kg(2~3%)인데, 제시된 데이터중 No 1(전남 구례)에서 66%로 제시되어 있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OM(%)의 단위가 아무래도 OM(g/kg)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럴 경우 No 1(전남 구례)의 경우에는 6.6%로 아주 높은 반면에 No 4(전북 진안)은 1.3%로 매우 낮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유기물이 높은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낮은 토양에서는 유기물 자원의 공급이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유효인산은 우리나라 토양특성에 기준할 경우 적정범위가 200~500mg/kg으로 사료된다. 제시된 데이터에 기준할 경우 No 3(전북 진안)은 36ppm(=mg/kg)은 너무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36이 아니라 360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준일 것이다. 36ppm이 참값이라고 하면 이 재배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용성인비와 같은 인산질원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보완을 필요로 한다.

(4) 치환성양이온은 우리나라 토양특성에 기준할 경우에 K(칼리)의 경우 0.3~0.6me/100g 수준, Ca(칼슘)의 경우 5~6me/100g 수준, Mg(마그네슘)의 경우 1.5~2.0me/100g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칼리의 경우 No 1, 2, 3, 4, 5 모두 높은 수준이고, 칼슘의 경우에는 No 1, 2, 5가 약간 높고, No 4가 약간 낮은 수준이고, 마그네슘의 경우 No 1, 5에서 약간 높은 상태이지만 그런대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상태에서는 칼리가 약간 높지만 이는 수용성 성분으로 토양내에서 이동성이 빠르기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EC(electrical conductivity = 전기전도도)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토양내에 이온성(전하성) 물질이 많을 경우에 증가하고 이들이



적을 경우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토양내에 치환성 양이온이나 기타 음이온들이 높을때 높게 되고, 이들이 낮으면 낮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작지에서는 0.2~0.4 ds/m 수준으로 No 1이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참고적으로 EC 측정방법이 paste를 이용한 포화추출법인지 아니면 간이법인지를 명확하게 규정된 상태에서의 설명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상 토양분석을 통한 氣味論적 해석을 시도하기 위하여 山茱萸의 전반 내용을 검토하였다. 토양적인 조건으로는 재배 혹은 자생지로서 대부분 적절하였다고 설명되어진다. 다만 토양분석상의 개개의 내용이 한의학의 氣味論적인 사고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으며, 이에 대한 사고의 접근은 건강부회식 설명으로 오히려 한의학의 氣味論을 훼손할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었다. 미루어 보건대 모든 한약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리라고 보여진다. 즉 토양분석은 재배조건을 활성화한 양질의 한약재생산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초점이 한약재의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로서의 氣味論의 설명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 2. 내외부 형태 연구

### 1) 기원식물



#### (1) 기원

山茱萸科(층층나무과 ; Cornaceae)에 속한 落葉小喬木인 산수유나무 *Cornus officinalis* SIEB. et ZUCC.의 성숙한 果實을 건조한 것이다.

#### (2) 植物 形態

落葉小喬木으로 높이는 약 4~9m에 달한다. 작은 가지는 茂盛하며 四稜이 있고 枝皮는 灰棕色이고 樹幹皮는 片狀으로 剝離된다. 잎은 對生하며 卵形~長橢圓形으로 先端은 점차 뾰족하며 基部는 圓形이고 全緣이다. 꽃은 작고 黃色이며 잎에 앞서 봄에 피며

繖形花序로서 小枝頂端에서 생기는데 그 아래에는 4枚의 卵形苞片이 있다. 核果는 長圓形으로 익으면 紅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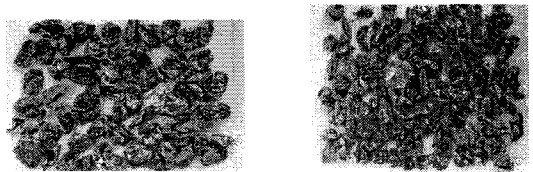
### 2) 약재성상

이 약은 扁壓된 긴 橢圓形을 이루고 길이 15~20mm, 너비 약 1cm이다. 표면은 紫紅色 또는 紫黑色으로 흔히 겉에 白色가루가 있으며 쭈그러졌고 광택이 있으며 거친 주름이 있다. 果肉에는 씨를 뺀 자국인 틈이 있고 頂端에는 圓形의 花萼 흔적이 있으며, 基部에는 果梗의 흔적이 있고 質은 부드럽다. 이 약은 약간 냄새가 있고 맛은 신 맛이 있으며 약간 달다.

이 약은 果肉이 두텁고 붉은 보라색이며 윤기가 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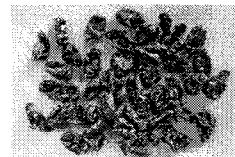
산지	약재성상 특징	수집현	비고
구례	수입산에 비해 밝고 크다.	서울 생약조합	상품
기타1	북한산에 비해 밝으며 냄새가 강하다.	광주 한약사람	재배
기타2	건포도와 유사한 형태로써 안에果汁이 없이 밀라붙은 상태이나 윤기가 있고 망랑거린다. 색깔은 약간 검은 빛이 도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붉은 빛이며, 단맛이 나니 시큼하다.	한국대구	
기타3	한국대구-국산에 비해 크기가 크고 색깔이 더욱 밝다. 단맛이 좀더 강하며 열시 시다.	한국전남	
기타4	전체적으로 형태가 비슷한데 색깔은 가장 짙어 검붉은 자주색이다. "쓰고 신 맛"이 덜하다.	한국서울	상품
기타5	크기가 가장 작으며 쪼개진 것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색깔은 표면에 흰색이 있고, 맛은 매우 시며 쓴 맛도 강하다.	한국서울	중품
기타6	한국전남-국산과 크기가 비슷하며, 꽃대같은 잡질이 많다.	한국전북	
기타7	크기가 가장 크고 색깔이 가장 밝아 붉은 빛을 띤다. 첫맛은 약간 달고 매우 시다.	전북무주	A
기타8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검은 빛이 돈다. 표면도 윤기가 가장 적고 메달라 보인다. 신맛이 나며, 다른 산수유처럼 처음의 상큼한 맛은 없다.	전북무주	B
북한	색깔이 국산보다 더욱 검은 빛이 난다.	광주 한약사람	
浙江省	크기가 약간 더 크다.  肉質이 국산에 비해 물렁하다.	음니하브	
수입	표면에 흰색이 있으며 크기가 작다.	서울 생약조합	중품

수집지별 약재사진



국산(재배)

국산(북한산)



수입산(절강성)

3) 내부형태

수집지	내부형태 특징
국산	겉은 두터운 角質層이며 세포벽도 비후되어 있다. 外果皮는 1열의 약간 長方形의 편평한 表皮세포이고, 中果皮는 매우 넓고 多列의 薄壁細胞이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세포 안은 짙은 갈색의 색소덩어리를 함유하며 안쪽에 가까이 여러개의 維管束環列이 있다. 果柄근처의 횡절면에서 石細胞와 纖維束을 볼 수 있다. 草酸鈣簇晶이 비교적 적다
수입산	外果皮의 表皮세포는 橢圓形을 나타내며 겉의 각질층의 비후가 약하다. 中果皮의 薄壁細胞의 크기는 일정한 편이며 草酸鈣簇晶이 상대적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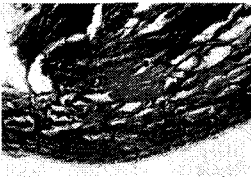
종별 내부형태사진(50-200X)



국산 X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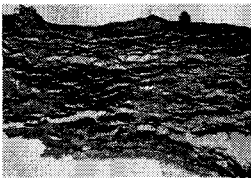
국산 X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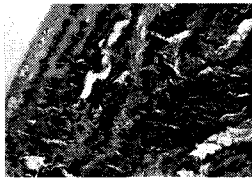
국산 X200



수입산 X50



수입산 X100



수입산 X200

이상을 종합하면 氣味論적인 설명 중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공정항방의서에 나타난 해당항약재의 효능을 중심으로 역추적하는 방법이었다. 이는 한의학이 장기간의 임상실천을 통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유의성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이는 귀납적인 설명을 필수적으로 여기는 한의학의 특성상 절대적이며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면에서 氣味論적 설명을 위해서는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한 것이고, 연역적인 설명에 대한 시도는 무리한 방법이라고 본다. 아울러 시도된 방법 중 채취시기·가공방법·보관방법에 따른 氣味論적 해석과 특히 자연조건(고도와 온도, 평균습도, 토양분석)을 근거로 하는 氣味論적 설명 해석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었다.

내외부형태에서, 자연상태 및 약재상태의 외부 및 내부형태는 문헌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외부·내부형태와 전체적으로 일치하였다. 다만 아울러 산지별로 특징적인 모습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요한 점을 열거하면,

(1) 국내에서 유통되어지고 있는 山茱萸의 기본적인 구별은 색깔의 선명도와 윤기의 유무와 크기로 구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국산의 경우 밝고 냄새가 강하며 단 맛이 나고 시큼하다. 전체적으로 윤기가 있으나 북한산의 경우 검은 빛이 나며 윤기가 없다. 국산의 상중하품은 크기와 색깔의 차이로 구분이 가능하다. 수입산의 경우 肉質이 국산에 비해 물렁하며 표면에 흰색이 있다.

(3) 내부형태에서 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산에 비해 겉에 두터운 角質層이 있으며 薄壁細胞안에 草酸鈣簇晶이 상대적으로 적다.

결론

山茱萸에 대한 氣味論적 해석과 내외부형태를 통한 표준개념의 정립을 위한 시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氣味論적인 설명 중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공정항방의서에 나타난 해당항약재의 효능을 중심으로 역추적하는 방법이었다.
2. 채취시기·가공방법·보관방법에 따른 氣味論적 해석과 특히 자연조건(고도와 온도, 평균습도, 토양분석)을 근거로 하는 氣味論적 설명 해석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었다.
3. 내외부형태에서, 자연상태 및 약재상태의 외부 및 내부형태는 문헌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외부·내부형태와 전체적으로 일치하였다.
4. 산지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 (1) 외부형태에서 기본적인 구별은 색깔의 선명도와

윤기의 유무와 크기로 구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산의 경우 밝고 전체적으로 윤기가 있으나 북한산의 경우 검은 빛이 나며 윤기가 없다. 수입산의 경우 肉質이 국산에 비해 물렁하며 표면에 흰색이 있다.

- (2) 내부형태에서 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산에 비해 겉에 두터운 角質層이 있으며 薄壁細胞안에 草酸鈣簇晶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17. 주영승. 윤곡본초학 下卷. 서림재. 2004:548-51.

18. 강병수, 서부일, 최호영. 韓藥炮製와 臨床應用. 서울:영림사. 2003:331-3.

## 참고문헌

1. 김호철. 기미약성론(기미론의 현대적연구현황). 경희대동서의학대학원.
2. 신민규, 고병섭, 주혜정, 이미영, 김인락, 주영승. 한약재관능검사기준연구. 보건복지부. 1999.
3. 한국한의학연구원. 상용한약재 기본항목정리(한약재 규격화에 필요한 성상 및 감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1998.
4. 고병섭, 주영승, 김호경, 황완균, 김대근등. 표준한약개발연구. 2002년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2003.
5. 이영순. 대한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청. 2002.
6. 國家藥典委員會編. 中華人民共和國藥典(一部). 2000年版. 化學工業出版社. 2000.
7. 주영승, 육상원, 한경식. 한약재내부규격설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1999.
8. 崔湖榮. 防風의 規格化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박사논문. 1996.
9. 黃成淵. 5種 柑橘類 果皮의 外部 및 內部形態와 遺傳學的 研究. 우석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2000.
10. 최용휴. 薏苡仁의 형태적 특성 및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2002.
11. 金在煥. 葉類藥材9종의 外部 및 內部規格研究. 우석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1999.
12. 김종욱. 4종 방풍류 한약재의 외부 및 내부형태와 유전학적 연구. 우석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 2002.
13. 주영승. 1994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발표논문 : 한약재규격집제장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94;15(2):281-305.
14.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공동교재편찬위원회編. 本草學. 서울:영림사. 2003:690-1.
15. 國家中醫藥管理局《中華本草》編委會. 中華本草 5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738-42.
16. 冉先德. 中華藥海. 하얼빈출판사. 1993:1744-7.